# 인공지능기초응용 II

5 주차 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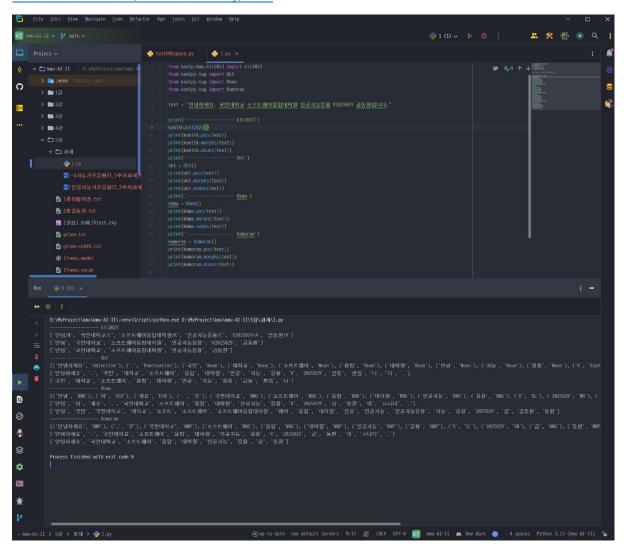
인공지능응용

K2025029 금동환

# 목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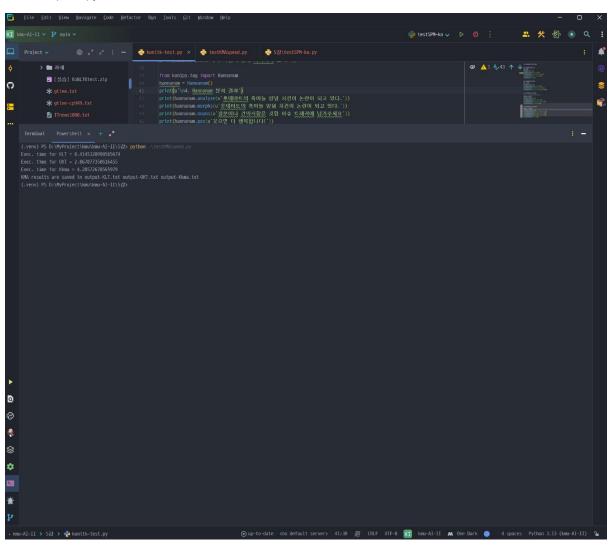
- 1. 파이썬 형태소 분석기(KoNLTK와 KoNLPy) 실습
- 2. <u>"[실습] KoNLTKtest.zip"의 파이썬 코드 3개</u>
- 3. [과제1]에서 준비한 텍스트 파일에 대해 파이썬/윈도용 형태소 분석기 실습

1. 파이썬 형태소 분석기(KoNLTK와 KoNLPy) 실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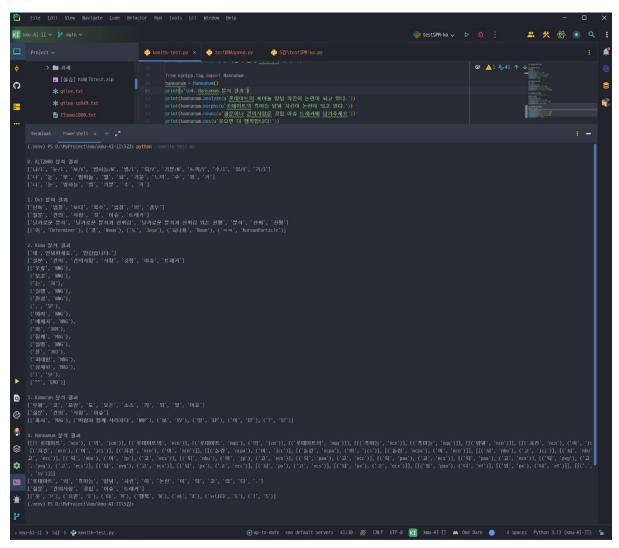


#### 2. "[실습] KoNLTKtest.zip"의 파이썬 코드 3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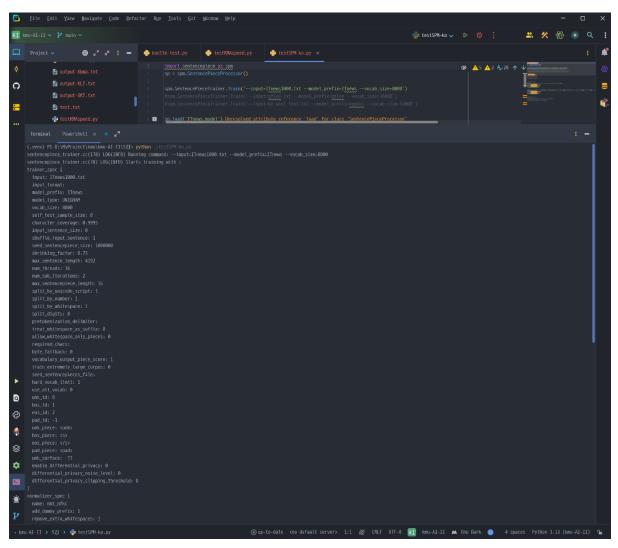
#### A. testKMAspeed.p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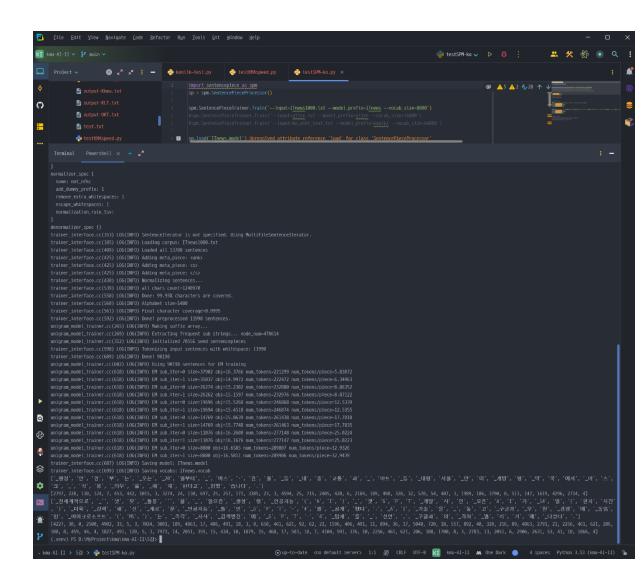


#### B. konltk-test.p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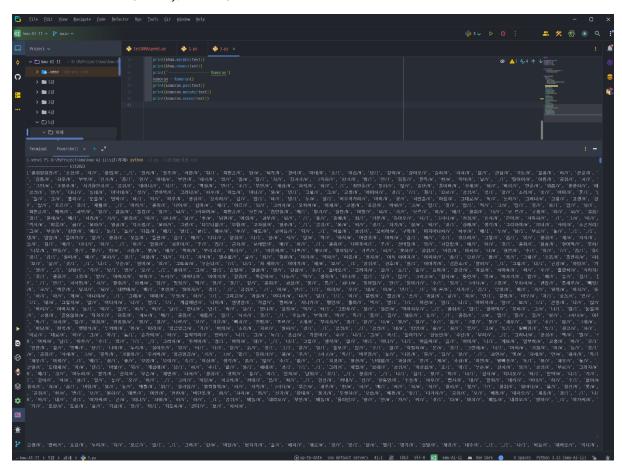


#### C. testSPM-ko.p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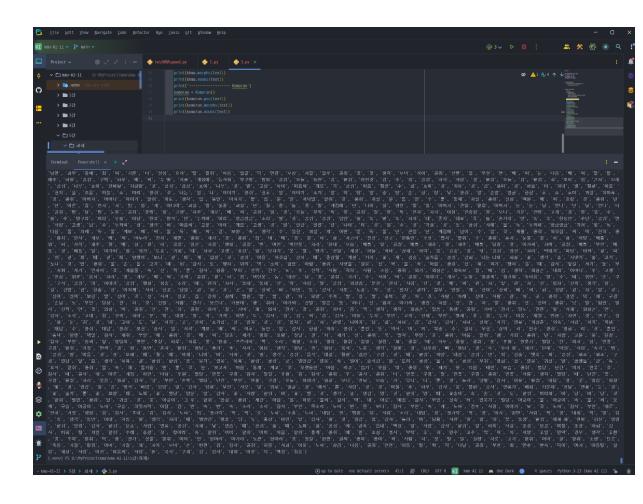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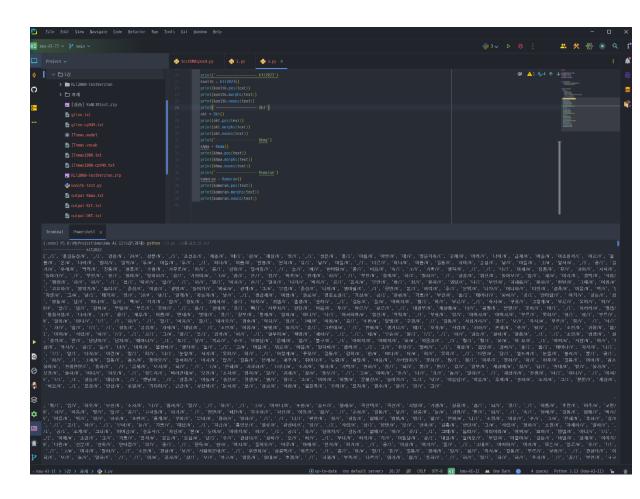
- 3. [과제1]에서 준비한 텍스트 파일에 대해 파이썬/윈도용 형태소 분석기 실습
  - A. 파이썬 형태소 분석기(KoNLPy, KoNLTK) 실습 내용 및 실습화면 스샷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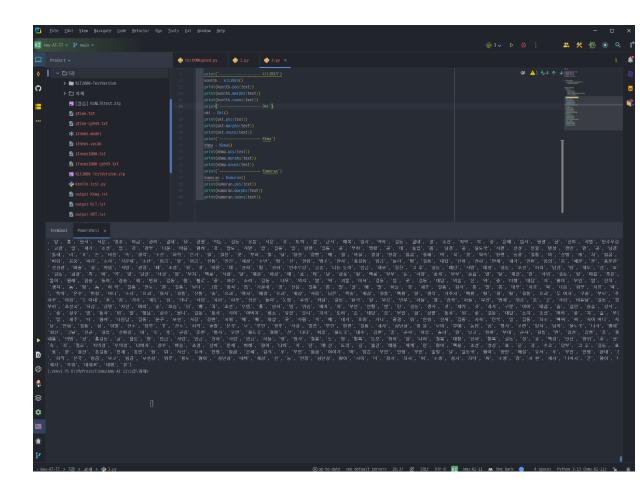
# 인공지능응용 K2025029 금동환



# 인공지능응용 K2025029 금동환



# 인공지능응용 K2025029 금동환



### B. index2018.exe를 이용하여 윈도 cmd창에서 실습 내용 및 실습화면 스샷

○ 🗟 Administrator: PowerShell × + ∨	-	o x									
PowerShell 7.5.0 PS D:\> cd D:\MyProject\kmu\kmu-AI-II\5&\KLT2000-TestVersion\EXE PS D:\MyProject\kmu\kmu-AI-II\5&\KLT2000-TestVersion\EXE PS D:\MyProject\kmu\kmu-AI-II\5&\KLT2000-TestVersion\EXE> .\index2018.exe .\1-cp949.txt											
콩쥐팔쥐 전 조선 시대 중엽 전라도 전주 서문 밖 최만춘 한 퇴직 관리 아내 조 이십여 건만 슬하 자식 없어 근심 기도 불공 하고 곤궁 사람 적선 하였는데 그러는 하루 부부 신기 꿈 얻고 이내 부인 태기 있었다	년 같이 <del>-</del> 사이 하늘	살아왔 감동									
이구 구구 는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	딸아이 이름 겨 백일	콩쥐 만									
만춘 외롭고 쓸쓸할 때면 죽은 아내 생각 눈물 흘리며 어린 콩쥐 안고 다니면서 얻어 먹였다 그러나 하루 이들 아니고 일 년 그랬으니 그 고생 어떠하였을 는 콩쥐 젖 찾는 소리 죽은 어미 혼 만약 있어 들었다면 그 흘리는 눈들 었으리라	동네 아낙네 것 철 물 변하여 비	젖을 모르 되									
짜그더니 공쥐 으슥한 깊은 밤 빈 방 두 팔 허우적거리며 어미 찾으니 최만춘 듯하였다 그러나 그런 고생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니 쉬지 않고 흐르는 콩쥐 나이 십여 세 이르게 되었다 그러자 오히려 이제 고생 호강 바뀌어 그 딸 그 딸 지은 옷 입게 된 것		녹는 어린 먹고									
고 글 ^^ 로 ^	여 최만춘 하게 되었고	모든 설움									
원래 " 배" 시집 "갔다가" 팥취 " 말 하나 낳은 후 남편 여의 과부 되었는데 가문 들어온 터 그러나 천성 요사 간악 사투 그 딸 팔쥐 역시 마음 곱지 지 못하였다 그런만큼 터무니없는 모함 고자질 일쑤 콩쥐 못 되는 것 것 상쾌 생각 그리하여 모녀 사이 소곤거림 그치면 콩쥐 신변 참혹 일이 부친 한번 배 눈 든 다음 배 말 팥	좋은 중매 못하고 얼굴 자기 잘 벌어졌으나	최 덕스럽 되는 그									
시골 사는 계집에 동사일 몰라서는 목구멍 밥알 들어가지 않으니 콩쥐 오늘 들판 팥쥐 너 한 살 덜 먹었고 아직 어린것 어찌 김 맬 수 있으랴 그렇다 콩쥐 제 자식 사랑 할 것 팥쥐 너 오늘 김 매러 다니도록 해라	김 매러 고 집	다녀라 있으면									
하고 팥쥐 쇠호미 주어 집 근처 모래밭 매게 하고 콩쥐 나무 호미 주어 산비탈 하는 것	있는 자갈밭	매게									
콩쥐 점심 얻어먹지 못하고 호미 나무 만든 것 밭 한 고랑 못 매어서 마음씨 나쁜 계모 말미암아 기를 펴지 못하는 콩쥐 마음 어찌 다 형언 수 면 호미 부러뜨린 것 죄목 될 것 김 얼마 매지 못한 것 허물 별수없이 굶게 될 형편 어리 약한 마음 천지 아득하여져 어찌할 줄 모르 그럴 즈음 홀연히 하늘 검은 소 한 마리 내려오더니 콩쥐 보고 묻는 것		버리니 돌아가 - 저녁 다									
너 무슨 일이 있기 그토록 우는냐 나 자세한 이야기 해 보아 콩쥐 전후 일 이야기 검은소 말하였다											
그렇다면 너 곧강 하탕 가서 발 씻고 중탕 가서 손 씻고 상탕 가서 콩쥐 그 말대로 손발 얼굴 씻고 한참 후 돌아왔다 그러자 검은 소 좋은 치마폭 싸 주고는 홀연히 사라져 버리는 것	낯 씻고 호미 온갖	오너라 과실									
공취 그것 받았으나 아버지 보여 드리고 어머니 이야기 팥쥐 똑같이 나누어 먹겠다는 넣지 않았다 그리고 잠시 동안 몇 마지기 받을 매어 놓고 집 돌아왔다 그러나 닫혀 있었고 안 저녁밥 지어 팥쥐 함께 앉아 맛있게 먹고 있는 것 같았다	생각 하나 벌써 문	입 굳게									

	Administrat	tor: PowerSh	nell X	+	~										-		×
PS D:\M 홍길동전		\kmu\kmu 경판	-AI-II∖5 24	강\KLT20 장본	00-TestV	ersion\E	ΚΕ> .\in	dex2018.	exe .\2-	cp949.tx	t						î
공필증 조선조 급제 두 낳은	' 세종 벼슬 아들 아들	등 때 이조 두었는데	한 판서	지상 이르렀 <sup>다</sup> 하나	있었으니 아름 이름	 물망 인형	성은 조야 본처	<u>홍</u> 이 아	이름 충효 낳은	아무 갖추어 아들	대대 그 다른	명문 이름 하나	거족 온 이름	후예 나라 길동	어린 떨쳤다 시비	나이 일찍 춘섬	ı
<sup>좋는</sup> 그 공 용꿈 맛이하였 "	앞서 향하여 꾸었으L	공이 달려들기 - 공 위신	길동    반드시 기꺼이 돌아보지	낳기 놀라 귀한 그	전 깨니 자식 고운 않은	한 한바탕 낳으리리 손 채	꿈 꿈 ㅏ 잡고 어리	꾸었다 마음 바로 경박	갑자기 속 하고 관계 사람	우레 크게 즉시 하였으니 비루	벽력 기뻐하0 내당 바 행위	진동 # 들어가니 부인 하고자	청룡 생각   정색 하시니	수염 부인 하고 첩	거꾸로 나 유 말했다 따르지	하고 이제 일어 않겠습	
니다 하며								•							나		
지혜롭지		마치고는 못함	_ 한탄	손	떨치고	나가	버렸다	공	몹시	무안	화	참기	못하고	외당		부인	
그때 무렵 않기	마침 춘섬 공이	시비 나이 기특하게	춘섬 열 1	차 여덟 여겨	올리기 한번 애첩	그 몸 삼았다	고요한 허락	분위기 후	틈타 문밖	춘섬 나가지	이끌고 아니하고	곁방 <u>1</u>	들어가 타인	바로 접촉	관계 마음	그 먹지	
과연	ユ	달	 태기	있더니	10	달	일개	옥동자	낳았는데		생김새	비범	실로	영웅	호걸	기상	
'공 길동 더욱 길등 바를	한편 점점 귀여워 <sup>5</sup> 10 몰랐다	기뻐하면 자라 하면서도 살	교 8 출생 넘도록	부인 살 천해 감히	몸 되자 길동 부형	태어나지 총명 늘 부르지	l 보통 아버지 못하고	못한 넘어 형 종	것 하나 하고 천대	안타깝게 들으면 부르면 것	II 백 즉시 뼈	여겼다 가지 꾸짖어 사무치기	알 그렇게 	정도 부르지 한탄	그래서 못하게 마음	공 하였디 둘	ŀ
비글 발하여 일신 어찌	<sub>글 댔</sub> 니 대장부 나라 적막 통탄	세상에 큰 부형 일이	나서 공 있는데 5 아니겠는		본받지 이름 아버지 "	못할 만대 아버지	바 빛내는 부르지	차라리 것 못하고	병법 장부 형	익혀 통쾌 형	대장인 일이 부르지	허리춤 아니겠는 못하니	비스듬 <sup>®</sup>  가 심장	i 나 터질지리	차고 어찌하0 <sup>}</sup>	동정서 f 이	
하고 그때 " 길동은	<sub>일</sub> 말 마침 너 공경	교이 마치며 공이 무슨 자세	하고 있는 뜰 또한 흥 대답	- 기 내려와 달빛 있어서	검술 구경 밤	익히고 길동 깊도록	있었다 서성거리 잠	l는 자지	것 않느냐	보고	즉시	불러	물었다				
고 소인 공	8 소인 귀함 그 네	다침 마침 없사오니 말 무슨	달빛	즐기는 어찌 짐작 "	중 사람 했지만 했다	그런데 하겠습니 일부러 길동	만물  까 책망 절하	생겨날 " 체하며 말쏨	때	오직	사람	귀한	존재	줄	아옵니디	l만	
" 주신 하고 마음	기 소인 부모님 눈물 방자	- 평생 은혜 흘리며 해질까	교 설워하는 입었음 적삼 염려	는 불구 적셨다 크게	<sup>쓨 -</sup> 바 아버지 공이 꾸짖어	모 () 소인 아버지 듣고 말했다	교 대 대감 못 나자	정기 하옵고 비록	받아 형 불쌍하다	당당한 형 는	남자 못 생각	태어났고 하오 들었으니	어찌	도 사람 그	낳아 하겠습니 마음	길러  까 * 위로	,
입금 말	공시 재상 하면	에 <i>르기</i> 집안 나	<sup>금디</sup> 천한 눈앞	고개 종 서지	무엇이 몸 못하게	크셨다 태어난 하겠다	<u></u> 자식	너	아닌데	너	어찌	이다지	방자	앞	다시	이런	
<sub>일</sub> 이렇게 물러가리 가라앉 <sup>ㅎ</sup> 하루	꾸짖으니		군요 길동은 그제 밤 침소	<sup>저시</sup> 감히 길동은 잠 가	天아게 한 침소 이루지 울면서	아겠다 마디 돌아와 못하곤 아뢰었다	더 슬퍼해 했다 ㅏ	하지 마지	못하고 않았다	다만 길동	당 본래	엎드려 재주	눈물 뒤어나	흘릴 도량	뿐 활달	공이 마음	